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예수님의 나라

성경: 요한복음 18장 33-38절

Tag: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 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 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18:33-38)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나무는 야자수 잎. (대추야자, 풍차야자, 열매는 주황색 매실 같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에 해당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였다.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11:9-10)

호산나:지금 구원하소서! (3인칭 단수)

-물론 당시에 백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압제 가운데 있었으므로 대중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이심을 잘 아셨으므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같은 단어지만, 백성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갈린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왜 굳이 이런 포퍼먼스를 하셨을까? 통치방식이 세속적이지 않을 뿐이지, 중국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는 다르다.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예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다.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

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20:4-6)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사탄과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그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18장에 이들은 세속도시의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성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왕과 음행하는 자들과 치부하여 사치하는 상인들이 갑자기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

성도들은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을 것인데, 그 옷은 사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종들이 자기가 벌어들인 달란트의 숫자대로 10 달란트를 가진자는 열 고을을 다스리며 왕노릇 하게 되리라 하셨다.

1000년이라 함은 많은 해를 상징하는 숫자이지, 꼭 천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학자들마다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갑론을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은 아니나, 왕 노릇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뜻을 품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러 당국자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그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지내시곤 하셨는데, 이날은 걱정하고 다른 때와는 달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점, 그것도 잠시 빌려 타셨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주변에 적어도 수백명 가량의 군대만이라도 거느리고 입성하셨더라면 훨씬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로마 군사들도 초긴장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헤롯은 멀리 도망갔을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어떻게든 협상하려고 끙끙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다. (잡히시던 때.)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26:52)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26:53)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세력을 감당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로마 총독은 헤롯 대왕 대신에 예수님이 왕권을 쥐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다면, 빌라도는 로마로 퇴각하였을 것이고, 당시 로마황제 **티베리우스**는 군대를 파병하여 반역자들과 전쟁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날 것을 잘 알고 계셨다. 다만 예수님은 이 세속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

리셨다. 세속도시 속에서 희생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하셨고, 승천 하셨다.

그리고 이 세속도시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빼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19:8)

14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22:14)

세속도시에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세마포를 입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신앙고백을 의미함이고, 이 세속도시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른 행실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 세속도시 속에서 점점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을 성도라 부른다. 지금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15 내가 비유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17:15)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8-29)